SK 증권
Analyst 김도하 · 02-3773-8876 · doha.kim@sk.com

Issue Comment

- ✓ 손해율 악화에 따라 4Q 연결 당기순손실 339 억원 기록
- ✓ 업종 자동차 손해율 악화는 '19 년 초까지 지속될 전망
- ✓ '19 년 손보사 10%대 증익 전망하나 기대는 낮춰야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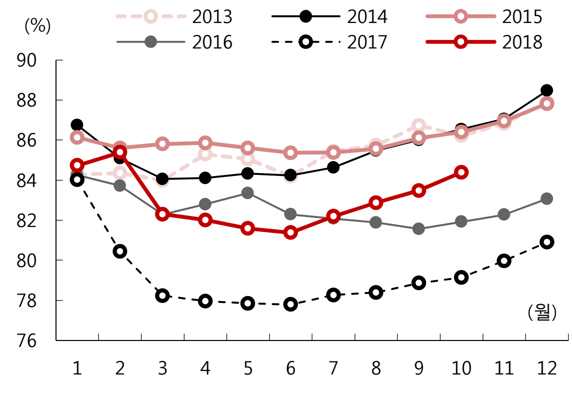
한화손해보험: 손해율 악화에 따른 실적 쇼크 기록

- 한화손해보험은 손익구조 15%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18 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,103 억원 (-44% YoY), 당기순이익 816 억원 (-45% YoY)을 공시. 4Q18 연결 기준으로는 당기순손실 339 억원을 기록

- 동사의 4Q18 별도 기준 시장 컨센서스인 당기순손실 39 억원 대비 적자폭 크게 확대.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은 1) 100%에 육박하는 자동차 손해율과 2) 영업일수 증가를 감안해도 상승폭이 높았던 장기 위험손해율, 3) 투자수익률 부진 등에 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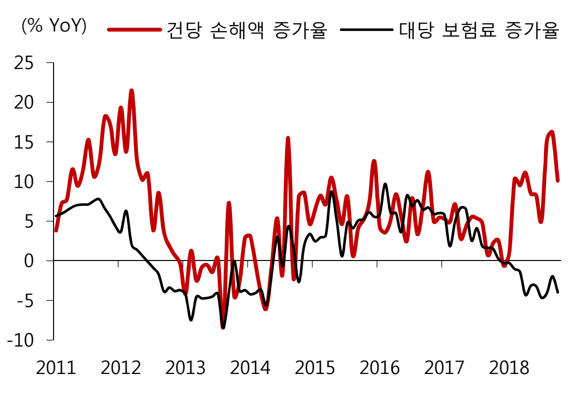
- 일회성보다는 보험금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이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.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날씨 효과가 평년 대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체적으로 손해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, 2019 년 초까지도 악화된 손해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 여전히 주요 손보사의 2019 년 순이익이 두 자릿수의 YoY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해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나, 실적 기대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

손해보험업종 연도별 월 누적 자동차 손해율 비교



자료: 보험개발원, SK 증권 주: FYTD 기준

손해보험업종 대당 경과보험료 vs. 건당 발생손해액



자료: 보험개발원, SK 증권

▪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▪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▪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▪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